



(32) 정시채 前 농림부장관 <하>

■ 전라도 역사이야기

-사직동

# “국회에결위원장 시절 전남 섬개발 힘 좀 썼지”

11대 국회에 입성한 정시채 전 농림부 장관은 내무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1985년 치러진 12대 총선에서 정 전 장관은 해남·진도에서 출마했다. 경쟁자는 사회민주당의 김봉호, 국민당의 이성일, 민한당의 민병초 후보 등이었다.

“당시 제 기호는 5번이었는데 고향인 진도에서 87% 득표율을 얻으면서 1위로 당선됐습니다. 제 표는 5만5천여표였는데 2위를 차지한 김봉호 후보는 1만7천여표 밖에 얻지 못했어요. 군세가 약한 진도 출신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아직까지도 제가 유일합니다”

그는 1987년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국회부의장은 목포고 동기인 최영철 의원이었다.

“당시에는 정부 예산을 변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통과시키고 나서 부의장이 방방이를 휘두르면 정부 예산이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문에는 ‘대한민국 예산을 목포고 3회가 맡아먹고 있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곤 했어요”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공사를 시작한 것도 그 때였다.

“전석홍 당시 전남지사가 관련 예산을 신청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러던 군요. 그래서 김만제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부탁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 장관이 전체 국가 예산 16조인 상황에서 광양만 컨테이너부두 건설예산 5천억원을 지출하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다 1992년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했어요.”

## “1987년 내무부 규정 바꿔

### 진도에 도서개발 혜택”

그래서 국회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조사용역예산 10억원만 올렸지요. 이후 1988년부터는 매년 공사비가 책정됐지요”

정 전 장관은 또 ‘도서개발촉진법’을 만들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육지와 도서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을 지원, 도서의 개발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각종 자재를 옮기는 운송료 때문에 도서지역의 개발에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했던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육지 경우보다 100%를 더 주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사실 정 전 장관은 1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들었으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협의해 주지 않아 법 제정에 실패했다. 그런데 그가 12대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이 되자 경제기획원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후 도서지역 개발 붐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작 정 전 장관의 고향인 진도는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내무부 규정에 ‘연륙된 도서는 도서로 보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이다.

“1984년 연륙되면서 진도는 그 법의 혜택을 못본다고 당시 내무부 도서 담당 과장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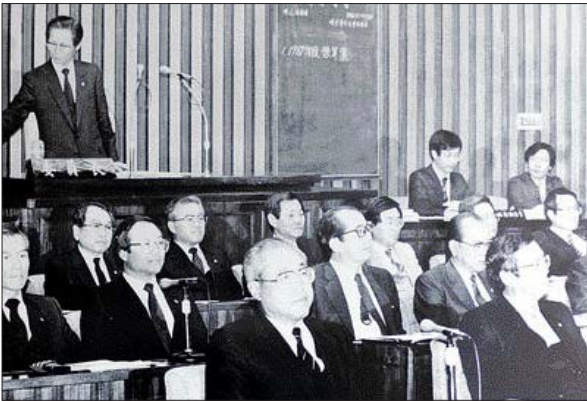
#### 약력

- ▲1933년 진도군 군내면 출생
- ▲목포고, 전남대 법대졸업
- ▲광주경찰서장·무안군수·광주시장·전남 부지사
- ▲11대, 12대, 14대 국회의원
- ▲농림부 장관
- ▲초당대 총장

륙된 지 10년까지는 도서로 볼 수 있도록 내무부 규정을 고쳤지요”

소선거구제로 바뀐 13대 총선에서 그는 황색바람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평민당 김봉호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하지만 1992년 14대 국회에는 당시 광주시당위원장인 이환의 전 의원과 함께 전국구로 입성했다. 이때 그는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 활동을 벌였다. 또 1995년에는 5·18특별법 기초소위원회에 참여, 5·18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다.

정 전 장관은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 또 다시 해남·진도에서 출마했으나 역시 김봉호 전 의원에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38%의 표를 얻어 전남지역 최고득표율을 기록하며



1986년 11월 국회 예산 심의 때 정시채 당시 예결위원장이 의사를 밝히는 모습. 맨앞쪽에 노신영(왼쪽) 당시 국무총리와 김만제 부총리가 보인다.

선전했다.

총선에서 선전한 때문이었는지 같은 해 12월 그는 농림부 장관에 임명됐다.

농림부 장관 재직 시절 그는 재경원 강경식 부총리와 상당한 갈등을 빚었다. 강 부총리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며 농업예산의 대폭 감축을 시도한 때문이었다.

“강 부총리는 비교우위론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식량주권론을 내세웠죠. ‘농어촌투자를 투자효율성이라는 잣대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며 ‘언제 식량위기를 맞

## “광양 컨부두 공사 예산책정 기여”

### 지금은 무안에서 사회복지사업

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을 이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그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선대위 호남본부장을 맡았다. 하지만 대선에 실패하자 1999년 4월 “새롭고 유능한 인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정계를 은퇴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 도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호남책임자인 저는 그를 비판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도민들에게 찬물을 부을 수는 없어서 은퇴했습니다”

이후 정 전 장관은 초당대 총장을 하며 2003년까지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섰다.

그리고 정 전 장관은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사재 12억원을 털어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에 사회복지법인 ‘에텐원’ 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006년에는 에텐원 내에 농부증관리센터, 올해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각각 개원해 농촌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조선시대 향교·사직단 설치 일제맨 포대 세워 市 감시도

사직동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광주공원 만들기’ 강의를 위해 광주전에 다가섰다. 새로 단장한 광주교와 바로 복원 전변좌로에는 ‘석서정(石犀亭)’이란 건물에다 냇 가운데 분수까지 설치돼 있다.

사직동은 광주 시가지의 서편 광주천 건너 지역으로 공원과 향교가 있어 광주 시내에서 가장 고색창연하다. 1947년 사(社)·구(龜)·서(西)등이었던 곳을 인구가 감소하면서 1998년 행정동으로 묶었다.

광주 중심지는 진산인 무등산이 남동쪽에 있어 북서쪽에 열린 배류(背流)형국이다. 양림산에서 사직산(109m)과 성거산(72m)으로 이어진 능선은 좌청룡이며, 안산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 때 성거사(聖居寺)가 있었고, 조선시대 사직단(社稷壇)과 향교(鄕校)가 설치됐다.

성거·성구등(聖龜嶺)은 비랑산으로 별이 성(星)(聖) 또는 자라(鰲)거북(龜)으로 한자화 되면서 비보기능까지 보태졌다. 거북이 광주의 정기를 지키므로 떠나지 못하도록 거북의 등에 짚을 짓고 목달미에 돌탑을 세웠다고 한다.

향교는 1398년 장원봉(壯元峰) 기슭에 설립했으나, 호환이 심해 시내 동명동으로



1963년 보물 제 109호로 지정된 광주서오층석탑.

옮겼다가 1488년 현 위치에 전학후묘(前學後廟)형식으로 지었다. 1895년 근대적 공립학교인 광주심상소학교가 설립된 곳이기도 하다.

일제는 사동 177번지 사직산과 구동 21번지 일대 성거산을 점령했다. 1906년 사직단 터에 포대를 설치하여 시내를 감시하고 위협했다. 1908년 서오층석탑 근처에 일본군 총흔탑과 이듬해 조선 최초 금융조합기념탑을 세웠다. 1910년대 구강공원이 조성되고, 신사(神社)가 설치됐다. 1924년 일본 황태자의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신공원이 사직산에 꾸며졌다.

광복과 더불어 신사를 철거하고, 1962년 4.19혁명희생영령추모비, 이듬해 우리 위한 영의(현충)탑과 전남도립광주박물관을 건립했다. 1971년 시민회관과 사직동 물원(1991년 우치공원으로 이전), 1972년 한말 의병장 삼남일순질비, 1993년 청소년 푸른 컴퓨터를 조성했다.

양림과출소 옆 돌계단을 오르면 정자교가 1914년 세운 양파정에 옛 석서정이라는 글이 있다. 동문선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이색(李穡·1328~1396)의 기문(記文)에는 광주를 ‘光之州’라고 쓴 대목과 함께 석서정이 나온다.

석서정의 이름은 범람이 잦은 광주천 수세를 달기 위해 치수로 유명했던 중국 고사에서 기원한다. 돌을 깎아 만든 물소(石犀·석서)가 수마(水魔)를 제압하는 힘을 지닌 바 풍수비보(風水裨補)다.

/김경수(새향토문화진흥원장)

LANEIGE